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공안기관과 광역지자체간의 문제인식 차이 및 제고방안 -부산 APEC 행사를 중심으로-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Subject and Device of Improvement in Security Activity of International Conference between Security Agency and Great-Sphere Self-Governing Body

이 선 기*

〈목 차〉

I. 서 론	IV. 결과분석
II. 이론적 배경	V. 문제인식 차이 및 안전활동 제고방안
III. 연구방법	VI. 결 론

〈요 약〉

이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공안기관인 경찰, 소방기관의 공무원과 APEC 행사를 근거리에서 지원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관한 안전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제 공안기관과 지자체의 사전협조로 안전활동에 대한 빈틈없는 기반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각 기능별로 안전활동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보완작용이 필요하다. 실시단계에서는 공안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시너지효과로 안전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평가 및 수정단계에서는 행사종료 후 공안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탐색하여 차후 행사에 대비해야 한다

주제어: 국제회의, 안전활동, 제고방안, 델파이방법, 문제인식

*대통령경호실 경호부이사관

I. 서 론

오늘날 21세기는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아 개최국의 국익을 위하여 다양하면서도 수많은 국제회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의 개최는 인류사회의 화해와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 행사의 개최에 따른 이점은 자국이 의장국으로서 자국정상의 지도력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국제회의를 계기로 자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요국가와의 정상회담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최국가도시 브랜드 제고에 따라 자국상품의 홍보효과가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저명 기업인이 세계 최고경영자회의를 주관하는 등 자국의 경영·투자환경을 널리 홍보하여 외화 투자유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상만찬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자국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세계에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관광객들을 더욱 많이 유치케 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김두현, 2004).

이러한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활동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최국은 위기관리차원에서 행사장과 국제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및 제반 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방비를 위한 국가역량을 총 집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개최된바 있는 국제회의인 2005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관한 안전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 소방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회의 행사의 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찰, 소방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으로 조사된 안전활동 단계별 구성항목에 대한 문제인식을 근거로 안전분야의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여 보다 실질적인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제행사시 안전활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미미한 실정이며, 과거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문헌적인 고찰, 연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가 차체에 한국에서 개최될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각 분야별·기능별로 안전활동의 확보가 국제회의의 행사 유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사례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시 행사를 직접 체험한 경찰과 소방기관의 전문가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다자간 국제회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에 대한 결과와 동일한 행사를 근접해서 지원했던 광역지자체 직원들이 생각하는 결과와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차후 유사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그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회의의 정의

1999년 9월 8일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391조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행사의 개념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장신, 2003). 국내에서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제회의라 함은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해야 하며, 회의참가자가 300인 이상으로 그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3일 이상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상에는 국제회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기타 회의로 규정하고 있다(송래현, 2003).

2. 안전활동의 의의

안전활동의 개념은 적용대상 및 범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안전활동이란 각국 정상인 참석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및 안전통제단이 국제회의의 주행사장인 컨벤션센터, 행사 참가인원, 그외 행사 시설물에 대하여 각종 위협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인적·물적·지리적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제반활동이라는 의미로 한정하고자 한다. 국제회의행사 및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스포츠행사에 있어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첫째, 안전확보가 최대의 서비스다. 개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제회의라 하더라도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테러 등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

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다.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는 국가간의 관계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전한 행사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물론 미디어 가치의 극대화도 국제무대에서 개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사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가정상이나 보도진, 관광객들의 신변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통하여 국위선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김두현, 2004).

3. 국제회의 안전활동단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단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위기관리단계」를 보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재난·재해 관리시스템의 활동은 재해의 주기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준비, 대응 그리고 복구의 4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박홍윤, 1997). 아래 <표 2-1>은 재난·재해의 진행 및 활동단계로서 배양·예방 ⇒ 발발·준비 ⇒ 진행·대응 ⇒ 소멸·복구의 주요활동내용을 보여준다.

<표 2-1>. 재난·재해 진행과정 및 안전관리의 단계별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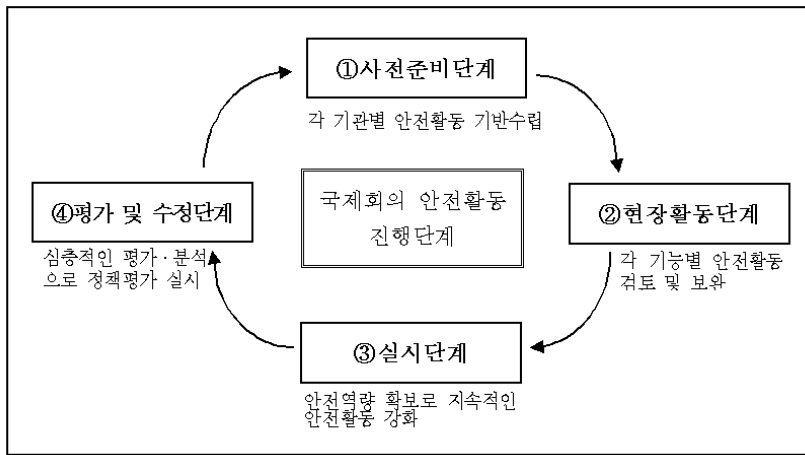
재난·재해 진행	↔	활동 단계	주요활동내용
배양	↔	예방	사고위험성 분석·위험지도 작성, 건축법 정비 제정, 재해보험, 토지이용관리, 안전 관련법 제정, 조세유도
발발	↔	준비	사고 대응계획 수립, 비상 출동체계 구축, 통합대응체계 구축, 비상통신망 구축, 대응자원 준비, 교육훈련·연습
진행	↔	대응	사고 대응계획 적용, 재난진압, 구조구난, 주민 홍보 및 교육, 응급의료체계 운영, 사고대책 본부 가동, 현장수습, 환자수송, 간호, 보호 및 후송
소멸	↔	복구	현장 잔해물 제거, 긴급복구, 전염병 예방, 이재민 지원, 임시 주거지 마련, 시설복구

출처: 이명수,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진단과 처방에 관한 연구, 2003.

미국 연방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통합위기관리체계에서도 발전된 총체적 위기관리모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위기관리 단계를 완화,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단계는 순차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관된 순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은, 2000). 이에 국제회의의 안전활동은 관련 안전활동이나 협조해야 할 부처가 많으며 상호 복잡하게 연동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단계별 임무수행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의의 안전활동 진행단계를 위기관리단계와 안전활동 순환체계를 고려하여 <그림 2-1>과 같이 ①사전준비단계 ②현장활동단계 ③실시단계 ④평가 및 수정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사전준비단계는 각 기관별 안전활동의 기반을 수립

하는 단계로 국제회의 개최가 결정되면서 국제회의 준비를 위한 안전예산 확보와 안전활동 기본계획수립, 안전기구 구성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제 공안기관은 행사준비기획단 및 안전통제단에 연락관을 파견하면서 주요업무를 협의·조정하고 준비활동을 하게 되며, 국제회의의 안전활동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준비위원회 규정(안)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규를 근거로 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위원과 학계, 재계, 언론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제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개최도시를 평가·선정하게 된다.

현장활동단계는 실질적인 안전활동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단계로 안전활동단계 중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제 공안기관은 분담되어 있는 임무와 기능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세심한 준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행사 안전활동을 저해하는 인적·물적·지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시키는 활동을 실시한다.



〈그림 2-1〉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진행단계

실시단계는 사전준비단계와 현장활동단계에서 추진된 모든 안전조치에 대해 집약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준비기획단과 제 공안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반 재난·사고에 대한 관리 및 예방·대응조치 실시, 안전인력의 최대 능력 발휘를 위한 제반 관리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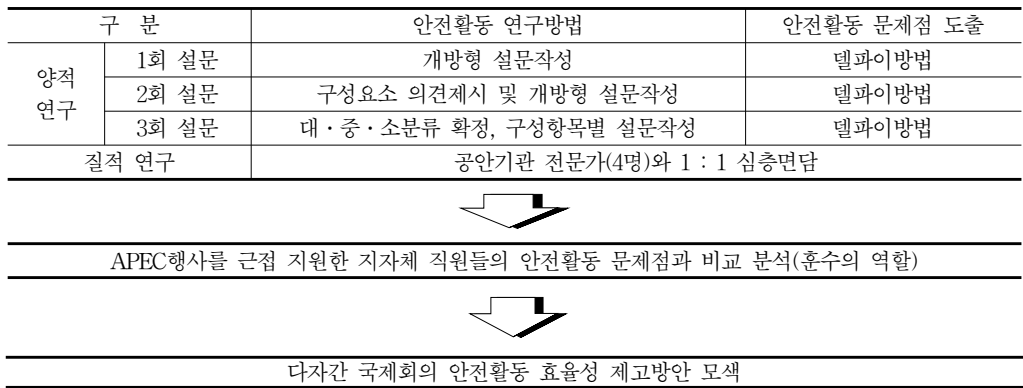
평가 및 수정단계는 최초 의도했던 국제회의 안전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평가하는 단계로 차후 행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리·기록·보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책의 개선이나 개선을 위하여 이전의 활동결과를 평가하는 업무 등이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기본 틀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 3-1>과 같이 APEC행사에 참여했던 공안기관인 경찰, 소방과 광역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문제점을 델파이방법(Delphi Method)에 의해 3회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설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기관의 실무 전문가인 과장급 간부 4명과 1 : 1 심층면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제고방안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APEC 행사를 근접 지원한 광역지자체 직원들에게 동일한 요령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공안기관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림 3-1> 연구의 기본 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다자간 국제회의인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적인 안전활동의 역할 및 총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안기관인 경찰, 소방과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적표집으로 선정하였다. 그 전문집단의 기관별 현황은 경찰청 44명, 소방 35명, 지자체 20명을 대상으로 해당 공안기관 간부의 추천과 일부 특정기관의 개별 접촉을 통해 99명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전문가별 소속기관, 연령, 경력에 따른 분포는 다음 <표 3-1>, <표 3-2>와 같다.

〈표 3-1〉 소속기관별 연령현황

구 분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계
공안기관	6	47	22	4	79
지자체	·	10	7	3	20
계	6	57	29	7	99

〈표 3-2〉 소속기관별 경력현황

구 분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계
공안기관	12	25	23	9	9	1	79
지자체	·	3	8	2	6	1	20
계	12	28	31	11	15	2	99

3. 조사도구 및 척도구성

설문의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안전활동 단계별로 대분류와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로 나누어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대분류의 구성요소는 사전준비단계, 현장활동단계, 실시 단계, 평가 및 수정단계로 4단계로 구분하고 중분류의 구성요소는 24개의 문제 인식 평가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분류에서 118개의 항목을 구성하였으나,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인 중분류 14개 부문, 소분류 66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편집하였다.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항목별 문제점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응답자의 단순한 짐작이나 즉흥적인 응답을 피하고 보다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척도구성 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문제 및 개선가능성 인식에 대한 척도 구성

구 분	1	2	3	4	5
문제 인식	문제가 전혀 없다	문제가 거의 없다	문제가 보통이다	문제가 대체로 있다	문제가 매우 많다

4. 연구기간

설문지 작성은 2006. 4. 1 ~ 2006. 5.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심도있게 작성하였으며, 이때 설문에 응할 공안기관 및 지자체 행사 지원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설문수준을 설정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2006. 6. 11 ~ 2006. 8. 10까지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 전문가와 1 : 1 심층을 통한 의견수렴과 종합분석 및 검토를 2006. 8. 21

~ 2006. 9. 20까지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자료처리 및 통계적 분석과정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EXCEL과 사회과학 통계분석을 위한 SPSS 13.0을 이용하였으며, 제1회 설문은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 구성요소 및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회 설문은 구성요소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3회 설문에서는 문제인식에 대한 정도를 재 규명하기 위하여 평균(M), 표준편차(SD)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1. 개 요

연구대상간의 합의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각 관점별 세부항목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문제인식에서는 0.44~1.04(안전예산 항목)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범위를 구성하고 있었다. 공안기관의 안전활동에 대한 문제 인식이 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으나, 대분류에서 사전준비단계, 중분류에서 안전기구, 안전법규, 차량/교통안전, 교육/훈련, 안전의전 부문이 높게 인식되었다.

2. 문제인식 부문 및 항목별 인식정도

1) 안전법규

<표 4-1>은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사전준비단계의 안전법규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법규 문제 인식으로 공안기관은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보통이다” 로 나타난 반면, 지자체는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 1개 항목은 “문제가 보통이다” 로 나타났다으며,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공안기관 보다 문제인식이 높은 것은 공안기관이 지자체에 비해 양해각서 적용 미흡, 기능 및 역할규정 적용 미비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4-1〉 안전법규 문제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안전업무를 기획/조정하는 기관 간에 업무범위가 모호하여 안전업무 시행시 혼란이 발생한다.	3.42	0.77	3.55	0.99
2. 행사 기획단의 임무/권한/책임의 양해각서 내용이 모호하여 혼란이 발생한다(외교부-지자체).	3.48	0.69	3.65	0.87
3. 안전업무를 실행하는 기관별 기능/역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3.16	0.75	3.45	0.68
안전법규 전체	3.35	0.53	3.55	0.67

2) 안전기구

〈표 4-2〉는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사전준비단계의 안전기구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기구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은 1개 항목이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난 반면, 지자체는 반대로 3개 항목이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나 지자체가 문제인식이 높았으며, 지자체는 14개 문제인식 부문 중에서 가장 문제인식이 높은 것은 국가적인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적절한 기구의 설정이 매우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으로 보인다.

〈표 4-2〉 안전기구 문제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자 자 체	
	M	SD	M	SD
1. 행사기획단(서울)과 준비단(행사지역)으로 분리 운용되어 업무협조/처리에 불편하다.	3.47	0.84	3.85	0.81
2. 업무의 범위가 중복된 안전기구/조직에 의한 인력운영으로 일선 안전기관의 인력낭비가 초래된다.	3.58	0.85	3.50	0.68
3. 준비기획단과 안전기관 간에 실무협의체가 형식적이어서 상호의견 조율에 애로가 있다.	3.22	0.71	3.45	0.82
4. 안전기관의 안전기구 구성시기가 각각 달라 계획/대책수립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3.43	0.77	3.65	0.58
안전기구 전체	3.42	0.58	3.61	0.46

3) 안전예산

〈표 4-3〉은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사전준비단계의 안전예산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예산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이나 지자체나 3개 항목이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나고 1개 항

목이 “문제가 보통이다” 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안기관이 지자체 보다 문제인식이 높았다. 또한 14개 문제인식 부문 중에서 공안기관은 첫 번째, 지자체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안전예산에 대해 문제점과 불만이 지속될 개연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율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표 4-3〉 안전예산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기획예산처/준비기획단/안전기관간 예산편성에 관한 사전협의가 부족하다.	4.06	0.91	4.05	0.60
2. 기존예산의 확보가 부족한 기관에 대해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다.	4.11	0.87	3.90	0.78
3. 안전기관에 대한 예산이 인원 위주로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3.48	0.79	3.25	0.44
4. 안전예산이 첨단장비 구입보다 복지부문(출장비 등)에 편중되고 있다.	3.42	0.79	3.15	0.81
5.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기관의 예산이 부족한 기관에 일부 지원되고 있다.	3.76	0.89	3.60	1.04
안전예산 전체	3.76	0.55	3.59	0.43

4) 안전인력운영

〈표 4-4〉는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현장활동단계의 안전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인력운영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은 5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 로 나타났고, 지자체는 2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 로 나타났으며 공안기관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대체로 있다” 고 보는 항목은 보고회의에 대한 불만을 지적하였으므로 국제행사시 보고 및 회의는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다.

〈표 4-4〉 안전인력운영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폭발물 검색업무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비전문가가 차출되어 행사안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3.29	0.87	3.15	0.74
2. 여성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여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	3.20	0.92	2.90	0.91
3. 각 근무지별로 외국어 능력 우수자/통역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3.56	0.69	3.30	0.73
4. 동원인력 부족으로 일부 근무자의 업무가 중복 부여되어 근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3.67	0.90	3.25	0.63
5. 근무시간이 과다 편성되어 피로도가 가중된다.	3.84	0.88	3.45	0.75
6. 행사 인력 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이 감소된다.	3.53	0.88	3.25	0.63
7. 행사인력 선발시 경험자보다 신입/유휴인력이 선발된다.	3.41	0.92	3.60	0.50
8. 대내·외 보고회의가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고, 회의가 길어져 차후업무/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3.91	0.78	3.75	0.88
안전인력운영 전체	3.55	0.51	3.33	0.46

5) 위해정보/보안

〈표 4-5〉는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현장활동단계의 위해정보/보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위해정보/보안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은 4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났고, 지자체는 전체 항목에서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으며, 지자체가 공안기관 보다 문제인식이 높은 항목은 주변 공사장에 대한 비전문적이고 융통성 없는 통제로 공기 차질을 우려한 항목이었다.

〈표 4-5〉 위해정보/보안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국제테러협약의 관리 등 위해정보에 대해 외국정보기관과 유기적인 정보 교환이 부족하다.	3.65	0.87	3.20	0.69
2. 안전기관 간에 유기적인 정보교환 협조체제가 미흡하다.	3.56	0.78	3.45	0.82
3.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테러사례를 빠르게 분석하여 안전인력에게 교육/전파하는데 미흡하다.	3.63	0.80	3.25	0.63
4. 위해정보 수집시 과거의 전례/기준에 따라 수집되어 체계적 분석이 미흡하다.	3.43	0.71	3.25	0.85
5.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 인물 사진을 체크포인트 상에 비치하고 근무하지 않는다.	3.57	0.81	3.20	0.83
6. 국제회의의 행사에 반대하는 NGO 등 시위정보가 안전요원에게 적시에 전파되지 않는다.	3.14	0.94	3.10	0.78
7. 주변 공사장에 대한 비전문적인 통제로 인해서 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긴다.	3.37	0.77	3.45	0.94
8. 행사지역 공항 출입국관리 업무가 인천공항에 비해 신뢰 수준이 떨어진다.	3.25	0.79	3.15	0.74
위해정보/보안전체	3.44	0.50	3.25	0.49

6) 보도관리

〈표 4-6〉은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현장활동단계의 보도관리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보도관리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이나 지자체 공히 3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는 현장활동단계 중 보도관리의 문제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보도진의 출입통로가 일반인과 같아 불편함을 지적한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표 4-6〉 보도관리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등록 기자단의 수에 비해 보도 관리하는 안전인력의 부족으로 안전요원/기자단 모두 애로가 있다.	3.30	0.66	3.25	0.78
2. 보도진의 특권인식이 상존하여 장비 검색시 안전요원과 마찰이 발생한다.	3.72	0.75	3.45	0.75
3. 장비가 많은 보도진의 출입통로가 일반인과 같아 보도진 출입이 불편하다.	3.29	0.80	3.50	0.60
보도관리 전체	3.43	0.59	3.40	0.54

7) 폭발물탐지안전

〈표 4-7〉은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현장활동단계의 폭발물탐지안전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폭발물탐지안전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은 3개 항목, 지자체는 1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공안기관은 현장활동단계 중 폭발물탐지안전이 문제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차기 국제행사시에는 폭발물탐지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표 4-7〉 폭발물탐지안전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각 행사장별 폭발물탐지인력이 부족하여 양질의 검색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3.66	0.79	3.10	0.78
2. 폭발물탐지요원이 현장에서 활동한 준비시간이 짧아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조율에 미흡한 점이 있다	3.28	0.84	3.25	0.78
3. 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 정상적인 검색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3.75	0.85	3.50	0.88
4. 최신 검측장비를 도입/숙달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비의 운용상 효율성이 감소된다.	3.53	0.76	3.25	0.91
폭발물탐지안전 전체	3.55	0.59	3.27	0.69

8) 안전홍보

〈표 4-8〉은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현장활동단계의 안전홍보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홍보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이나 지자체 공히 6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가 공안기관 보다 문제인식이 높은 항목으로는 테러위협에 대해 언론보다 제 안전기관의 대응홍보의 미흡을 지적한 점이다.

〈표 4-8〉 안전홍보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각종 언론이 테러위협에 대한 보도비중을 높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홍보는 미흡하다.	3.44	0.79	3.55	0.51
2. 언론의 다양한 취재/인터뷰를 이용한 대국민홍보/시민 협조사항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다.	3.37	0.75	3.35	0.58
3. 외국 언론을 이용한 행사 안전활동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다.	3.56	0.72	3.10	0.55
4. 시각적인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영상물 활용이 부족하다.	3.37	0.71	3.25	0.63
5. 안전분야 홍보를 위한 기획/조정 협의체가 없어 안전홍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3.48	0.69	3.15	0.36
6. 포스터/공익광고/인터뷰를 통한 대국민 신고의식 제고가 부족하다.	3.38	0.75	3.35	0.48
안전홍보 전체	3.43	0.57	3.29	0.25

9) 교육/훈련

〈표 4-9〉는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현장활동단계의 교육/훈련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교육/훈련 문제 인식으로 공안기관이나 지자체 공히 6개 항목 중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공안기관 보다 문제인식이 높았으며, 지자체가 공안기관 보다 문제 인식이 높은 항목으로는 행사장 내, 외곽의 답사시간 및 횡수의 부족 및 종합예행연습의 부족으로 현장적응능력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표 4-9〉 교육/훈련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소속기관별로 임무수행에 관련된 기본교육/훈련이 부족하다.	3.28	0.71	3.25	0.71
2. T/F팀 구성 후 합동으로 팀별 기본소양교육/훈련의 교육기간이 부족하다.	3.43	0.74	3.35	0.67
3. 기본교육과목에 있어서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	3.41	0.72	3.30	0.73
4. 행사장 내·외곽 및 지형을 숙지하는 답사시간/횡수가 부족하다.	3.20	0.79	3.25	0.71
5. 현장에서 개인사정 등으로 교체된 안전인력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교육/훈련 미흡으로 팀 전력에 차질이 생긴다.	3.23	0.80	3.15	0.48
6. 전체적인 종합예행연습(FTX)의 횡수가 부족하여 현장적응 능력이 미흡하다.	3.01	0.80	3.35	0.67
교육/훈련 전체	3.25	0.54	3.27	0.44

10) 안전의전

〈표 4-10〉은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실시단계의 안전의전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의전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은 4개 항목 모두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으나 지자체는 1개 항목이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은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안기관 보다 지자체의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가 문제 인식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리허설 부족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다.

〈표 4-10〉 안전의전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전문성이 부족한 자원봉사자에 의한 안내로 인해 효과적인 안내업무가 미흡하다.	3.41	0.77	3.25	0.71
2. 의전요원 부족으로 참가회원국에 대한 의전 서비스가 부족하다.	3.24	0.83	3.30	0.65
3. 전체적인 리허설 부족으로 행사시 행사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3.18	0.78	3.50	0.68
4. 행사 의전차량이 자체 예행연습에 참가하지 못하여 행사시 차량대형용에 영향을 준다.	3.10	0.76	3.25	0.71
안전의전 전체	3.23	0.56	3.32	0.44

11) 상황관리

〈표 4-11〉은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실시단계의 상황관리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상황관,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이나 지자체 모두 4개 항목 모두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지자체 보다 공안기관의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난 점은 공안기관이 상황근무의 중요성을 평상시 높게 인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 4-11〉 상황관리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행사기간 중 상황전파가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아 정보공유에 불만이 있다.	3.38	0.75	3.20	0.69
2. 부실한 내용에 의한 상황전파나 형식적인 보고가 많아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된다.	3.49	0.73	3.30	0.64
3. 특이상황 미 발생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상황요원이 매너리즘에 빠진다.	3.48	0.71	3.05	0.68
4. 각 부처 주요인사의 격려방문이 많아 상황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한다.	3.41	0.92	3.45	0.82
상황관리 전체	3.43	0.55	3.17	0.47

12) 안전인력 자원관리

〈표 4-12〉는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실시단계의 안전인력 자원관리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인력 자원관리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은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났으나 지자체는 전 항목이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공안기관 보다 지자체의 문제인식이 높았고, 안전인력에 대한 복지대책 부족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다.

〈표 4-12〉 안전인력 자원관리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안전기관별 협조 및 안전인력 배치가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안전인력을 요구한다.	3.39	0.79	3.05	0.68
2. 안전인력에 대한 관심/격려가 미흡하다.	3.61	0.72	3.25	0.55
3. 행사안전업무를 위하여 동원되는 안전인력이 과도하게 많이 선발된다.	3.30	0.89	2.85	0.67
4.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안전활동수행이 위축된다.	3.56	0.88	3.00	0.72
5. 안전인력에 대한 복지대책(숙식/간식/피복/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	3.87	0.86	3.45	0.75
안전인력 자원관리 전체	3.54	0.55	3.45	0.49

13) 안전자료관리

<표 4-13>은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평가 및 수정단계의 안전자료 관리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자료관리 문제인식으로 연구 집단 모두 3개 항목에서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으며 문제인식 수준도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공안기관의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안전자료관리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행사 안전활동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정리/기록/보관이 미흡하다.	3.10	0.79	3.15	0.58
2. 차기 행사에 대비한 제 안전기관 책임자의 자료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	3.27	0.79	3.05	0.60
3.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결과자료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3.08	0.73	3.20	0.52
안전자료관리 전체	3.14	0.66	3.13	0.42

14) 안전결과분석

<표 4-14>는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점에 대한 대분류 평가 및 수정단계의 안전결과 분석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안기관과 지자체로 분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안전결과분석 문제인식으로 공안기관은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서 “문제가 대체로 있다”로 나타났으나 지자체는 1개 항목이었다. 나머지 항목은 “문제가 보통이다”로 나타났으며 안전결과분석 부문이 대체로 문제인식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공안기관이 지자체보다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안전결과분석 인식

국제회의 안전활동 문제요인	공안 기관		지 자 체	
	M	SD	M	SD
1. 과거 유사행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일부 재발된다.	3.23	0.67	3.35	0.48
2. 행사 안전활동 공적에 따른 포상자 선정이 각 안전기관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3.60	0.80	3.40	0.88
3. 안전인력에 대한 보상은 근무를 잘한 직원보다 연공서열이 우선시 된다.	3.80	0.80	3.60	0.94
안전결과분석 전체	3.54	0.57	3.45	0.60

2. 신뢰도 분석결과

본 연구결과 소분류로 분류한 부문이 하나의 카테고리인 중분류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표 4-15>와 같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중분류 14개 부문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를 분석한 결과, 안전법규, 교육/훈련인 2개 부문을 제외하고 모

두 0.6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며, 아울러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66개 소분류 항목들은 14개 중분류에 포함되고 소분류를 대표하는 요소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통계적인 신뢰도에서 0.6이하로 나타난 안전법규와 교육훈련의 2개 부문에 대해서도 이미 델파이방법과 안전 전문가와의 면담결과, 중분류 14개 부문 안에 포함되는데 문제가 없다.

〈표 4-14〉 신뢰도 분석결과

대분류	중분류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문항수
사전준비단계	안전법규	0.57	10.18	1.69	3
“	안전기구	0.68	13.85	2.25	4
“	안전예산	0.63	18.66	2.67	5
현장활동단계	안전인력운영	0.75	28.05	4.09	8
“	위해정보/보안	0.77	27.28	4.02	8
“	보도관리	0.73	9.47	2.15	3
“	폭발물탐지안전	0.74	13.99	2.48	4
“	안전홍보	0.84	20.42	3.17	6
“	교육/훈련	0.50	9.87	1.59	6
실시단계	안전의전	0.66	13.00	2.17	4
“	상황관리	0.65	13.55	2.19	4
“	안전인력 지원관리	0.72	17.30	2.84	5
수정/평가단계	안전자료관리	0.79	9.43	1.85	3
“	안전결과분석	0.60	10.58	1.74	3

V. 문제인식 차이 및 안전활동 제고방안

1. 분류별 문제인식 차이

1) 대분류 인식차이

공안기관은 사전준비단계(3.49), 실시단계(3.37), 현장활동단계(3.37), 평가 및 수정단계(3.36)순으로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는 사전준비단계(3.30), 평가 및 수정단계(3.29), 현장활동단계(3.24), 실시단계(3.18)순으로 나타났고, 공안기관, 지자체 공히 사전준비단계에서 문제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중분류 인식차이

공안기관에서 문제인식이 높은 부문은 안전예산, 폭발물탐지안전, 안전인력운영, 안전인력 지원관리, 안전결과분석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는 안전기구, 안전예산, 안전법

규, 안전결과분석, 보도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공안기관과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문제인식이 높은 부문은 안전예산, 안전결과분석으로 나타났으며 공안기관은 폭발물탐지, 안전인력의 운영 및 관리부문이 높았고, 지자체는 안전기구, 안전법규, 보도관리 부문에서 문제인식이 높게 인식되었다.

3) 소분류 인식차이

공안기관은 안전예산의 2, 1번 항목, 안전인력의 8, 5번 항목, 소방안전의 6, 8번 항목, 안전인력관리의 5번 항목, 안전결과분석의 3번 항목이 높은 문제인식인 “문제가 대체로 있다~문제가 매우 많다” 로 인식되었으며 지자체는 안전예산의 1, 2번 항목, 안전법규의 2번 항목, 안전기구의 1, 4번 항목, 안전인력운영의 7, 8번 항목, 안전결과분석의 3번 항목이 높은 단계인 “문제가 대체로 있다~문제가 매우 많다” 로 나타났다.

2. 안전활동 제고방안

1) 제 공안기관과 지자체의 사전협조로 안전활동에 대한 빈틈없는 기반 강구(사전준비단계)

본 연구에서는 공안기관과 지자체 공히 안전예산 부문에 관한 문제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안전법규와 안전기구 부문은 지자체가 공안기관보다 문제인식이 더욱 높은 부문이었다.

안전예산은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며 안전인력의 운영, 안전장비의 도입, 지자체가 관장하는 안전시설의 보수 및 점검,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교육훈련, 인력자원관리 등 각종 안전활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주일엽, 2006). 아울러 각 공안기관 및 지자체 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전협의, 집행은 안전활동 업무의 균형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역할과 규모에 맞게 안전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법규로는 공안기관 간 모호한 임무 구분, 중복된 인원 운용 등에서 안전활동 업무를 조정, 협의, 관리하기 위한 행사기획단과 안전통제단 등 조정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공안기관과 지자체 간에도 사전에 양해각서를 통해 관련 규정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실시단계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혼란과 불협화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 사례로 외교부와 지자체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일부 이견발생으로 실무자 간에 업무를 서로 미루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기구 부문으로는 각 안전기관별로 국제회의에 대비한 준비기획 부서의 구성시기가 서로 달라 제한적으로 여타 기관과 보조를 맞추는 등 안전활동의 효율이 저하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T/F팀의 구성이나 관련 위원회 등 안전기구를 임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각 기능별 안전활동 검토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보완작업 지속(현장활동단계)

공안기관은 안전인력운영, 폭발물탐지 부문에서 높은 문제인식 정도를 보였으며 지자체는 보도관리와 안전인력운영 부문에서 문제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인력운영 부문은 공통적으로 문제인식이 높았다. 이에 대한 제고방안으로 안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행사를 담당하는 공안기관이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제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이명수, 2003). 동원인력수가 많은 국제행사인 경우, 행사기간이 압박하면 안전인력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조정하는 문제로 인해 여러 행정적인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로 정확한 인력산출이 요구된다.

국제회의의 행사장의 안전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발물 검측업무를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측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첨단 검측장비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며, 유관기관인 소방, 한국전력, 가스안전공사, 엘리베이터 회사 등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어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 보안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기관과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야하며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 등을 통한 장비정보의 확보와 중, 장기적인 도입계획, 장비와 IT의 접목 등 과학화를 위해 끊임 없는 노력과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이선기, 2007).

보도 및 홍보활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수천 명의 기자단에게 원활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과 준비기획단의 보도담당 직원과 취재기자단 간사와의 긴밀한 사전협조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안기관과 지자체 간에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도록 홍보기구를 설치하고 대언론 기본방침에 의해 인터뷰와 취재요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며 시각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반복훈련으로 교육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고 제 안전기관과 협력을 통한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입체적인 비상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상황별, 임무별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반복적인 차량훈련으로 교통관리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3) 공안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시너지효과로 안전역량 제고(실시단계)

공안기관이 높은 문제인식을 보인 부문은 안전인력 지원관리 부문이었으며 지자체는 안전의전 부문에서 높은 문제인식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제고방안으로 안전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격려부족, 책임규명에 대한 불안감, 복지대책 부족, 부적절한 보상 등이 문제요인으로 거론된 점을 감안할 때 안전인력에 대한 사기가 실시단계에서 국제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이선기, 2007). 따라서 안전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안전인력이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안전인력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국제회의 행사의 기반시설 조성, 회의장 운영 지원, 국제회의 참석자의 숙박 시설 확보, 각종 교통시설 및 주차장 확보 등에서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장 주변 연도상의 교량, 터널, 고가도로, 복개천 등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시 공안기관인 경찰, 소방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해야하므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준비기획단과 지자체와 공안기관과의 신속하고도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상황실간 Hot-Line 구축과 같은 상황전파체계 구축, 통신체계 개선, 안전인력 상호파견 등을 통해 상황관리 업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행사의전과 관련하여 행사 초기단계에서 협조한 각종 의전계획이 실시단계에서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행사기획단, 안전통제단, 공안기관, 지자체 등 제 기관이 합동 리허설을 실시하고 이때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행사종료 후 공안기관, 지자체 합동으로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모색(평가 및 수정 단계)

기록문화에 있어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다른 공안기관이나 지자체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해당기관의 책임자가 자료의 기록유지에 소극적이거나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기록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이선기, 2007). 아울러 국제행사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제 기관이 일정기간 합류하여 심층토론 후 자료를 통합 보존하는 전향적인 자료관리시스템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공안기관의 포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각 기관별로 적당히 배분하거나 연공서열에 의해 추천되는 것보다 행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숨은 공로자가 누락되지 않는 추천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근거로 안전인력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실적관리가 병행되

어야 한다(주일엽, 2006).

VI. 결 론

이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공안기관인 경찰, 소방기관의 공무원과 APEC 행사를 근거리에서 지원했던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대분류 면으로 공안기관과 지자체 공히 사전준비단계에서 문제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제행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제도적·예산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분류 면으로는 공통적인 측면으로 안전예산, 안전결과 분석부문에서 문제점과 중요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공안기관은 안전인력의 운영 및 관리, 폭발물탐지, 부문에서 지자체는 안전법규, 안전기구 부문에서 높은 인식을 보인 것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결과와 해당기관 전문가와 1 : 1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행사에 관한 안전활동 제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각 안전기관의 역할과 규모에 맞고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기획예산처, 준비위원회, 안전통제단, 공안기관, 관할 지자체 간에 사전조율이 필수 전제되어야 하며, 제 기관 간 업무의 명확성과 실시단계에서의 혼란을 사전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각 공안기관과 지자체 간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의 구성이나 관련위원회의 설치 등 안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효과적인 폭발물 검측을 위해 첨단장비의 도입을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차질없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하며, 인력운영 면에서는 공안기관의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체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외 정보기관과 행사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를 통한 장비도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기관별로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것 보다 상호이해 증진차원에서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체계

적인 교육훈련인 합동 리허설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이고 입체적인 비상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실시단계에서는 안전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인력이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안전인력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지자체는 국제회의 행사의 숙박시설 등 각종 업무에서 호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안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공안기관과 행사기획단과도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상황관리를 위해서 Hot-Line 구축과 같은 상황전파 체계도 확보하여야 한다.

평가 및 수정단계에서는 행사자료관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행사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다른 기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기록문화를 과감히 타파하고, 안전기관별, 행사장별, 업무별, 단계별 등으로 정리·분석·평가하여 차후 유사한 행사 개최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요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시스템과 공로자 추천시스템의 개발도 함께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2006). 「종합치안백서」, 경찰청, 3~15.
- 국정원(2006). 2005 테러정세, 국정원, 36~45.
- 김두현(2004). 「현대 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569~585.
- 김우곤(1997). 「국내 컨벤션산업의 현황 및 경제과급효과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관광경영연구. 34~45.
- 김장신(2003). 「컨벤션 기획 및 실무」, (주)팁스 원, 3, 7~12.
- 문연철(2001). 「국내 컨벤션산업의 위기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12~13.
- 부산시(2005). 「역대 APEC 개최 사례 - 2003년 태국 방콕」, 부산 APEC기획단. 146~158.
- _____(2005). 「2005 APEC 정상회의성공개최 준비상황」, 2005 부산 APEC기획단.
- 박홍윤(1997).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충주산업대 논문집 제32집 1호, 396.
- 소방청(2006). 「소방안전활동백서」,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269~275.
- 송래헌 외(2003). 「컨벤션 경영과 기획」, 대왕사, 27~38.
- 안경모 외(1995). 「국제회의 기획경영론」, 백산출판사, 135~146.
- _____- 외(2004). 「한국의 컨벤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8호, 8, 57.
- 오현득(2005). 「국제행사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외교부(2006). APEC정상회의, 서울: 외교통상부, 14.
- 이명수(2003).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진단과 처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학원, 21~24.
- 이선기(2002). 「한국의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논문, 71~94.
- _____(2007).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19~234.
- _____(2007). 국제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제26호, 65~104.
- 이재은(2000).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75~76.
- 이창용(2004).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현우(1999).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북스, 57~65.
- 주일엽(2006). 「국제스포츠대회 안전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62~171.

최성룡(2000). 「국가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 중앙소방학교, 45-57.

황희곤 외(2002). 「컨벤션 마케팅과 경영」, 백산출판사.

Sarah Byrant. and Sylvia S. Gaiko(1999). Determining Skills Necessary for meeting Planners, Proceedings The Convention/Expo Summit VII, Las Vegas : Nevada February.

D. G. Rutherford. (1990). Introduction to the Convention, Expositions, and Meeting Industry,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Don Getz(1997). Event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New York : Cogniz Communication Cooperation.

ABSTRACT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Subject and Device of Improvement in Security Activity of International Conference between Security Agency and Great-Sphere Self-Governing Body

Lee, Sun-Ki

This study's purpose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security activity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can be held hereafter.

On the basis of security activity problems originating in APEC that had been held in Pusan in 2005.

I made up questions three times to on the members of the police, military, fire fighter and Busan city civil servants who had participated in Busan APEC and recognition of possible problem and possibility of improvement on each item of questions was analyzed by Delphi Method.

Also interviews with 4 security experts selected from each security agency were conducted to present improvement in each part of problem.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ory cooperation between security agencies and self-governing body is needed for the basis of security activity in preparatory stage.

Second, examining thoroughly security activity by function in activity stage.

Third, giving full play to their genius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security agencies and self-governing body in enforcement stage.

Fourth, provision for events after this on the basis of effective estimation system in evaluation stage.

Key word: International conference, Security activity, Possibility of Improvement, Delphi Method, Recognition of possible problem